

2021년도 대학 암호 동아리 지원 사업 후기

2021년 10월 21일 QuantumAnt 김현지

QuantumAnt는 2019년부터 한국 암호 포럼에서 시행하는 대학 암호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올해에는 2020년도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암호 동아리 지원 사업 자격을 얻었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운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관리를 잘못해서 2년간 유지해온 동아리에 피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있었지만, 교수님께서 언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작년 동아리 회장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과 다르게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느낀 점도 많았고 동아리원들도 해당 지원 사업을 잘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느낀점을 몇 개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다른 동아리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아리의 경우는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한 틀을 잡는데에만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는 교수님께서 여러 학술대회 및 공모전을 소개해주시고 개인 공부를 할 기회를 많이 확보해주셔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아리 발표를 하면서 든 생각은, 이런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발표 자료나 활동 모습 사진 같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잘 포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중간 평가에서 실적은 많은데 자료가 자세하지 않다는 평을 들었고, 실적이 별로 없어도 홍보나 발표 자료에 신경을 많이 쓴 팀이 더 좋은 코멘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적용되는 점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수증 처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은 작업이었습니다. 300만원의 지원금이 할당되는데 쓸 때마다 바로 처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몰아서 하게 될 경우 영수증과 사진을 매칭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음 동아리 운영을 하게 되실 분은 최대한 제 때 처리하는 것이 시간이 덜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서적 구매, 학회 등록,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 원들의 개인 간식비에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동아리 회원이었을 때는 동아리 지원금을 거의 안 써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내년에 잘 사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도 동아리 평가 때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쓸 곳이 없으면 회식도 하고 친목도 모하고 힘내서 공부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튼 굳이 공부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만 보내면 되니까 혹시 동아리 지원금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암호 동아리 지원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과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활동한 동아리원들께 감사드립니다.